

10년간 위조부품 공포의 영광원전

미검증 부품 5천여개 사용...5·6호기 동시 가동 중단

최근 납품 비리가 적발된 영광원자력발전소에 10년간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부품이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2·6면> 검증도 안 된 부품을 10년간 사용해 왔다는 사실에 지역주민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찾은 원전 고장파 부품비리가 품질보증 위조 부품 파문까지 겹치면서 원전의 안전성만을 강조했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 당국에 배신감마저 토로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원전 부품 공급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5일 "원전 부품 공급업체가 외국 기관에서 발급하는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적발돼 영광원전 5·6호기의 가동을 중단한 뒤 연말까지 부품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기당 100만kW급에 달하는 영광원전 5·6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라 유난히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 겨울 전력난도 예상되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납품업체는 모두 8곳으로, 60건의 검증서를 위조해 10년간 퓨즈, 스위치, 전자접촉기, 정류기, 다이오드, 소켓, 압력조정기, 저함온도계, 계전기, 변환기 등을 공급했다. 이들은 모두 소모품이지만 원전 부품이 높은 안전등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원전 가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들 업체가 공급한 237개 품목의 7682개 제품(8억2000만원 상당)으로 실제 사용된 품목은 136개(5233개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사용된 5233개 제품 가운데 영광원전 5·6호기에 각각 2547개(48.7%)와 2590개(49.5%) 등 5137개(98.2%)가 쓰였다. 3·4호기에는 각각 31개, 20개, 울진

3호기에 45개 제품 등이 장착돼 있다.

지경부와 영광원전 측은 해당업체가 공급한 부품이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는 원전 고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찾은 고장을 일으켰던 영광 5·6호기 등의 고장 경위와 문제 부품과의 연관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경부로부터 수사뢰를 받은 광주지검은 이날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해 업체들의 위조 수법, 검증서 위조 과정에서의 한수원 직원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한수원은 영광원전 5·6호기에 공급된 문제의 부품을 교체하고 원전 설비의 안전성을 정밀 조사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재가동 승인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5일 광주 북구 용봉로 전남대학교에서 '2012년, 1997년의 새로운 변화가 재현된다'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단일화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재인-안철수 오늘 단둘이 만난다

안 전남대 강연 "광주가 단일화·정권교체 씨앗 돼달라" 회동 제안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5일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단일화를 위한 '양자 회동'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3·4면>

안 후보는 또 "모든 국민의 박수와 축복을 받는 단일화와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광주가 씨앗이 되고, 중심이 돼 달라"며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문 후보는 이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고, 두 후보는 6일 배석자 없이 만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대선을 44일 앞두고 최대 변수로 꼽혔던 문·안 두 후보의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선 판도가 격렬히 요동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전남대 초청강연에서 "우선 문 후보와 제가 먼저 만나서 서로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정치혁신에 대해 합의하면 좋겠다"며 문 후보와의 양자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각자의 공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 방식과 형식만 따지면 진정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단일화의 감동도 사라지고 '1+1'이 2가 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양자회동을 통해 가치와 철학을 합치고 정치혁신에 대해 합의하면 더 많은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1을 3으로 만들어 반드시 정권교체를 만들 수 있다는 약속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또 "정치가 변화하는 정권교체, 국민의 삶이 바뀌는 정권교체를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 저는 문 후보와의 철학이 이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의 과제를 저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낡은 물줄기를 새로운 물줄기를 통해 바꾸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두 분이 갖고 있는

변화의 정신을 선택한 광주가 이번에도 변화의 중심에 서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안 후보는 '단일화 3원칙'으로 ▲기득권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단일화 ▲가치와 철학이 하나 되는 단일화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를 제시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 대해 "지난 5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비판한 뒤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

는 지난 9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세론이 붕괴한 점 ▲우리 선거 사상 처음으로 정치혁신이 선거 의제로 부상한 점 ▲네거티브(흑색선전)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을 3대 성과로 손꼽았다.

안 후보의 단일화 회동 제안 이후 문 후보 측 노영민·안 후보 측 조광희 비서실장은 전화접촉을 하고, 두 후보가 6일 배석자 없이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로호 연료공급부 틈 생겨 고무링 파손 해당 부품 러시아 이송...재발사 더 늦어질 듯

나로호 3차 발사(지난달 26일) 연기 원인은 당초 알려진 단순 고무링 파손이 아니라 발사체와 발사대를 연결하는 부위의 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해당 부품을 러시아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재발사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5일 "나로호 3차 발사관리위원회가 발사가 중단된 원인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과 러시아 연구진의 조사 결과, 연료·헬륨 공급을 위한 발사체와 발사대 연결부위의 기체 밀봉용 고무실(seal)이 찢어진 것은 연료·헬륨을 받아들이는 발사체의 '어댑터 블록'

부분이 헬륨가스 공급 과정에서 접합부에서 분리되면서 틈이 생겼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서 만든 1단부 가장 아래 쪽에는 연료나 헬륨가스 등을 받아들이기 위해 지름과 높이가 각각 약 40cm 정도인 녹색 원통(디스크) 모양 부품이 붙어있는데, 이를 어댑터 블록이라고 한다. 지난달 31일 이 어댑터 블록을 교체한 뒤 수행한 추가 실험에서는 6시간 동안 별 이상이 없었다. 또 점검 결과 어댑터 블록을 제외한 나로호 1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사관리위원회는 한·러 연구진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의 어댑터 블록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비교할수록 << 토요타 >>

토요타 광주전시장 OPEN 이제 광주에서 비교해 주세요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36개월 무이자 할부
광주전시장 062_371_8383

TOYOTA
Smile for Tomorrow

2013학년도 **조선대학교** 신입생 수시2차 모집

전형유형 및 모집인원

| 전형유형 | 모집인원 |
|----------------|--------|
| 일반학생전형 | 2,159명 |
| 특기지원전형 | 120명 |
| 무응 | 25명 |
| 미술 | 17명 |
| 특수교육대상자전형(정원외) | 14명 |
| 계 | 2,335명 |

접수기간: 2012. 11. 12(월) ~ 11. 16(금)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www.chosun.ac.kr
문의처: 조선대학교 입학처 062)230-6666

facebook chosununi
twitter @chosun_univ